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자료</h1>		
부정과 반칙이 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		배포일시	2019. 10. 22(화) 총 4매(본문2)	
담당 부서	도로운영과	담당자	• 과장 오수영, 사무관 김정환, 주무관 허동혁 • ☎ (044) 201-3912, 3920	
보도일시		2019년 10월 2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22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“국도변 졸음쉼터, 안심하고 이용하세요”

- 「일반국도 졸음쉼터 5개년(’20~’24) 기본계획」 수립 -

화장실, CCTV, 여성안심벨 설치 의무화, 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도 철저

□ 국도변에 화장실과 대형차 주차공간도 조성되고 CCTV, 여성안심벨 등 방법시설도 갖춘 졸음쉼터가 향후 5년간 50개소 신설될 예정이다.

* 권역별계획: 수도권(13개), 강원권(7개), 충청권(7개), 호남권(12개), 영남권(11개)

○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향후 5년간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, 「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(’20~’24)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에 계획한 졸음쉼터에는 조명시설, CCTV, 여성안심벨 등의 방법시설과 과속방지턱, 보행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

○ 화장실, 전기차충전소,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부지 여건에 따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,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에서는 “’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”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, 일환으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수립하였다.

* 최근 3년간(’16.~’18년) 졸음운전 교통사고: 약 5천7백건, 사망자: 약 230명

○ 이에 따라, 일반국도에도 고속국도와 같이 운전자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* 고속국도: 휴게소 220개소, 졸음쉼터 237개소

* 일반국도: 졸음쉼터 49개소, 국도변 휴게소는 전부 민간시설

□ 이번 “일반국도 졸음쉼터 계획”은 내비게이션(길도우미), 교통사고 발생이력 등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조성 대상지를 조사 하였으며

○ 현장분석을 통해 전국에 총 91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, 교통량, 사고집중도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50개소를 선정하였다.

○ 총 50개소의 졸음쉼터는 ‘20년부터 매년 10개소씩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총 사업비로 5년간 약 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“앞으로 국도 졸음쉼터가 운전자분들에게 안전운행과 쾌적한 여행길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쇄신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하면서

○ “쉼터 내 화장실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 등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 운영과 김정환 사무관(☎ 044-201-391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졸음쉼터 조감도



- 입구 시설**
- 1 졸음쉼터 안내표지판
 - 2 속도감속 유도 노면표지
 - 3 전방임로, 차로유도 컬러라인
 - 4 속도제한표지
 - 5 시선유도봉
 - 6 충격흡수시설, 장애물 표적 표시
 - 7 보행로
 - 8 분리대
 - 9 과속방지턱
 - 10 소형·대형 주차장
 - 11 우회전 금지표지
 - 12 조명시설 및 CCTV
 - 13 벤치 및 파고라
 - 14 사고시 대처 안내판
 - 15 화장실 및 여성안심방

- 정차 시설**
- 16 자판기
 - 17 운동시설
 - 18 스마트휴지통
 - 19 키오스크
 - 20 전기차충전소
 - 21 산책로
 - 22 캐노피

참고 2

일반국도 줄임셈터 5개년 기본계획 위치도

